



◇대한건설협회 도회 2019년 신년인사회가 8일 춘천 스키컨벤션웨딩홀에서 오인철 회장,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건설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 “종합건설업계 권익 실현 新시장 개척 앞장”

기해년 도내 종합건설산업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8일 춘천 스키컨벤션웨딩홀에서 ‘2019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인사회에서는 우수 건설인에게 표창장과 감사패 등이 전달됐다. 모범 건설인으로 선정된 안현구 원주(합)대원 대표, 윤수홍 강릉 신화건설(주) 대표, 정동기 원주 동진건설(주) 대표, 정봉철 영월(주)봉

건설협 도회 신년인사회 개최  
22개 회원사 대표 각종 상 수상  
을 신규 사업 발굴 방안 모색

래건설 대표, 홍광열 삼척 동산건설(주) 대표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이 밖에 17개 회원사 대표들이 각종 상을 수상했다. 또 도내 건설 관련 학과 학생과 회원사 자녀들에게 총 3,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강원건설인들은 이어진 오찬에서 신규 건설사업 발굴 방안을 모

색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오인철 회장은 “올해는 4차 산업혁명과 남북경협을 계기로 건설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도내 종합건설업계의 권익 실현을 위해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오인철 회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 “지역 건설경기 회복위한 정부 대책 시급”

대한건설협회 도회 신년인사회  
도내 건설산업 발전 유공 표창  
공사비 인상·유가지원 필요 제기

강원 종합건설사 대표들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8일 춘천 스키컨벤션웨딩에서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각급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도내 건설사 대표들은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시 공사관리비 지급 △공사비 인상 △건설사 저리용자 지원 등 정부의 건설업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8일 춘천 스키컨벤션에서 정만호 도경제부지사, 주현종 원주국토관리청장, 이재수 춘천시장, 이원규 춘천시의회장 등 도내 건설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은 정봉철 영월 봉래건설 대표는 “도내 건설사들이 수주감소로 재무위험에 시달리는데 설상가상으로 수주한 공사마저 적자를 볼 수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공사기

간은 예상보다 길어지는데 공사금액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공사관리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국토관리청장 표창을 받은

변주섭 평창 에림종합건설 대표는 관급공사 수주가 줄어든 건설사에 저리용자 지원 등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약제가 겹치면서 공사기간은 빠듯한데 인건비만 늘어나는 적자현상이 우려된다”며 “건설사 경영난 해결을 위한 저리용자 지원이나 표준건축비 정상화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수상한 김석길 원주신도건설 대표는 공공기관 공사비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재 도내 관급공사 발주량을 늘릴 수 없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비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지원대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관급공사의 비용은 설계가격의 80%대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부족한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 건협 강원도회, 신년인사회 개최... 회원사 포상도 진행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신년인사회가 8일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린 인사회에는 도회 소속 회원사와 도회 오인철 회장을 비롯해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 주현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안태경 강원도 건설교통국장 등 업계와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건협 강원도회는 이날 회원사

자녀 24명(고등학생 6명, 대학생 18명)에게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원사 포상도 진행됐다. 안현구 대원 대표, 윤수홍 신화건설 대표, 정동기 동진건설 대표, 정봉철 봉래건설 대표, 홍광열 동산건설 대표가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엄정용 장원 대표, 이창우 성찬종합건설 대표는 강원도교육감 표창을 받았다.